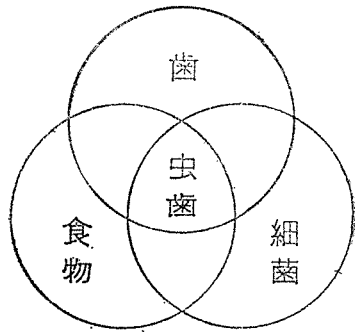


충	치	는
어	땡	계
생	기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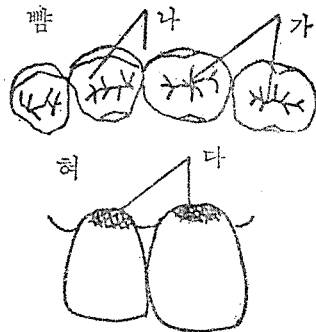
충치(虫齒)는 미개인(未開人)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명병이라고 한다. 이(齒)는 우리 몸 가운데서 제일 단단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묘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튼튼한 이가 무엇 때문에 충치가 되어 구멍이 파지며 쪼개지며 아파서 사람을 고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충치의 발생기전>

충치는 어떻게 생기나

충치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 왔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치아(齒牙)나 이를 틀러싸고 있는 입 안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그 요인을 분석하여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충치가 잘생기는 곳>

충치는 일반적으로 입안에 있는 수십억마리의 세균가운데 어느 종류가 먼저 무기질(인산칼슘등 석회성분)을 녹이고 다음 유기질(有機質)을 녹여 치아의 굳은 조직을 파괴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산(酸)을 만들어 내는 균이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탄수화물 또는 전분)을 분해하여 유기산(有機酸)을 만들고 이들 산에 의하여 치아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산을 만드는 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충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의 치아를 닦지 않는 사람에게 충치가 없는 수도 있다. 말하자면 치아의 질(質)이 충치와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충치가 생기려면 입안에 있는 세균과 충치를 발생하기 쉬운 음식물 그리고 충치에 걸리기 쉬운 성질의 치아등 세가지가 있어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한다.

충치를 예방하는데는 이들 3가지중 어느것을 억제하거나 또는 개선하므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고 현재 이런 의도 아래 각종 예방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스테인이라는 사람의 실험에 의하면 10% 포도당으로 입을 씻으면 치아의 표면산도(表面酸度)는 1분 30초후

에 갑자기 높아지는데 카라멜, 콜라, 쥬스, 칼피스, 야구르프 등을 많이 먹으면 치아는 산(酸)속에 젖어 있게 되므로 심한 충치를 일으키게 된다.

옷턱의 앞니는 생후 9개월정도에서 충치가 되는 수도 있으나 아랫턱의 앞니는 입안이 더럽지 않으면 충치가 되는 일은 매우 적다. 영구치(永久齒)는 여섯살 때 부터 충치가 생겨 12살까지 점차 늘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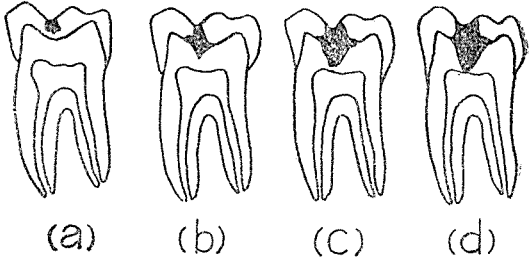
충치는 또 좌우로 대칭(對稱)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치아의 모양이나 생기는 위치, 시기등도 좌우로 대칭(對稱)하여 나타나므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충치는 어떤 곳에 잘 생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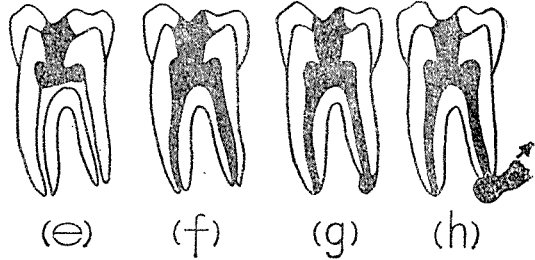
그러면 충치는 어떤 곳에 잘 생기는가. 첫째는 치아가 맞부딪치는 곳에 있는 가느다란 고랑(裂溝)이다. 둘째는 치아와 치아 사이다. 이곳에는 음식물의 가스가 머물게 된다. 셋째는 치아의 바깥쪽 잇몸부분이다.

음식물의 저작(씹는 것)은 입술, 뺨, 혀의 운동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이들 잘려진 음식물은 잇몸을 훑으면서 치아의 양쪽 표면을 씻어 내려간다. 그러나 혀

의 청소작용으로 깨끗이 씻겨진다. 치아의 안쪽에 비하여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잇몸 때문에 바깥치아는 줄어든 잇몸 부근의 음식물의 가스가 머물 자리를 남겨 준다.



만일 이렇게 가스나 음식물 찌꺼기가 스며들 장소를 허나 뺨입술등이 철저히 청소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과나 야채로 씻어 내지 않는다면 충치로라도 깨끗이 닦아 내어야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충치가 번지는 순서>

충치는 어떻게 번져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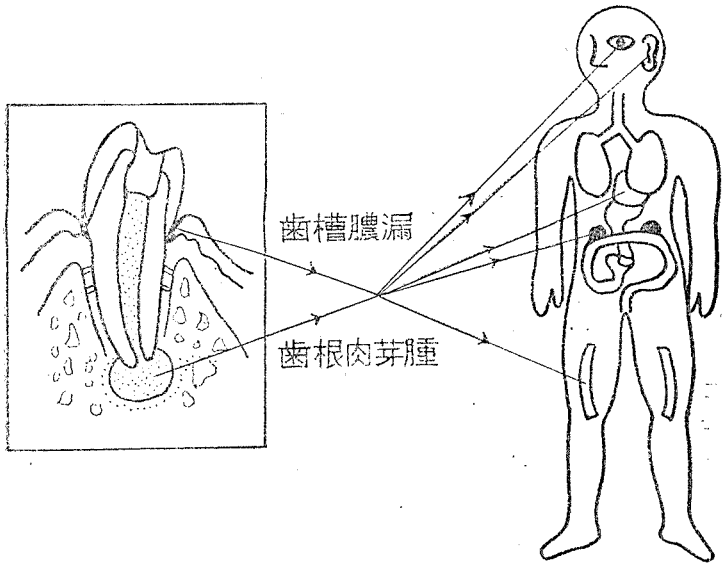
충치는 치아의 표면이나 고랑에 생기는 것등 여러가지가 있다. 에나멜질 성분이 희게 바래 있으면 치아의 칼슘이 녹고 있는 것을 알려 준다. 보통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쓴다. 안쪽에 있는 어금니 등의 고랑부분이 색깔이 들면 아프지 않아도 거울등에서 알아 낼 수 있다.

충치가 진행하여 안쪽의 상아질(象牙質)에 이르면 무언가 자각증상이 나타난다. 이 자각증상도 병변이나 진행정도 및 개인의 감수성등에 따라 다

르나 일반적으로 차가운 것에 민감해진다. 더욱 상아질 안쪽으로 미치면 구멍이 크게 들어가 차가운 것뿐만 아니라 단것, 잔것을 먹을 때 마다 아프게 된다. 이것은 탈수현상(脫水現象)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따듯한 것도 느끼게 되면 치과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치아의 중심부에 있는 치수(齒髓神經)가 충혈되어 조그만 자극이 있어도 신경이 쓰이고 차가운 물이 닿으면 오랫동안(1분가량)아프게 된다.

치수(齒髓)의 저항력에도 불구하고



<치아와 전신병과의 관계>

충치에 의한 내부파괴가 심해 지면 본격적인 신경염증(齒髓炎)을 일으킨다. 그 통증이 계속되고 잘때도 아프다가 빨진체에 미치면 신경에 고름(膿)이 생긴 것이므로 진정제로는 안되고 신경을 뽑아 내야 한다.

치수(齒髓—신경)는 연(軟)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석회로 된 굳은 치아조직이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이 치수가 염증을 일으키게 되니 높아진 내부압력이 밖으로 나갈 곳이 없어 신경을 계속하여 짓누르게 되는 것이다. 치아의 뒷쪽에서 구멍을 뚫어 내부압력을 뽑아 내면 통증이 없어 진다.

이러한 치수염을 거쳐 신경이 죽고 난뒤 그곳에 부패균이 감염되면 괴저(壞疽) 상태가 된다. 아이들이 학교복도에서 엎어지거나 무엇인가에 부딪쳐 치아에 타박을 받으면 치아의 뿌리혈관이 끊어져 영양 보급이 안되고 치수는 죽게 되는데 여기에 세균이 감염되면 괴저(壞疽)가 된다. 이때는 아프지 않으나 치아의 뿌리쪽 구멍에 세균이 퍼져 주위의 상아질을 파먹고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막(膜)에도 변화를 일켜 씹어도 힘이 없게 된다.

감기나 피곤으로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급성으로 나타나 치아가 부어

오르고 씹을 때는 아프다. 이런 상태에서라도 그냥 놓아두면 염증이 뼈속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게 된다.

그리하여 씹을 수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며 열이 나기도 한다. 조금 더 있으면 목밀의 임파선이 붓고 고름이 뭉쳐서 뺨이나 입술쪽에 혹(腫氣)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의학전문용어로 치근육아종(齒根肉芽腫)이라 부르고 있다.

이 육아종(肉芽腫) 때문에 치근낭포(齒根襄胞)나 치주염(齒周炎)이 생기기도 한다.

충치 예방법

충치의 발생원인과 과정을 살펴 본 우리는 충치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충치는 밤에 만들어 진다.

사람들의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있는데 이들이 주로 활동을 할때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잠자기 전에 입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절대로 단과자나 유산음료(乳

酸飲料)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함부로 단것을 먹지 말자

설탕과잉시대라고 해도 좋은 오늘날 사랑하는 내자식과 부모를 충치로부터 보호하려면 절도있게 단것을 먹도록 해야 한다. 단것을 먹고 과일이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아무때나 주점부리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단것을 먹고 싶은 욕심은 온통 충치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 아프기전에 의사한테 가야한다.

어린이들은 생후 2년이 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기 시작하여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해마다 2~3회 정기검사를 받으면 좋다. 만일 이런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도 어린이들이 이가 아프다고 하면 벌써 손쓰기가 늦었다고 생각해야 하고 한번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끝까지 치료를 다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중도에서 아프지 않으니깐 괜찮겠지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면 아이들 얼굴이 틀어지고 아랫 턱이 밀려나오는 등 보기에든 흉할뿐 아니라 아이들을 평생 고통속에서 보내게 할지 모른다.